

《24면에서 계속》

그녀가 K를 만난 것은 김의 화장을 하고난 뒤였다. 그녀는 하릴없이 거리를 돌아다녔다. 변화가 있을 때 도 검은 옷에 둘러싸인 그녀의 볼썽이런 동동 떠다녔고 소원도를 보아도 그녀의 얼굴은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김의 냉소가 덧씌워져 자신을 비웃을 것 같았다. 일부터 거울을 외면했다. 수없이 많은 진열장을 지나고 사각 유리 거울을 지나다. 죄지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눈을 외면했다. 그들의 눈을 볼 때마다 곱 입없는 욕망과 죽음의 순간이 떠오를 것 같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 가면 어깨를 움츠렸다. 딴 세상의 물건을 보듯 길거리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았고, 그 주위로 물러드는 수다 떠는 손님들을 보았고, 진열장 안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화려한 색

선화의 얼굴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지 않았다. 의미를 찾으려할수록 자신의 문제와 본능적으로 연결시키곤 했다. 그저 자살한 사체일 뿐이라고 여겨려 했다. C가 담배에 불을 붙여서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사양하지 않고 두어 모금을 빨았다. 담배 연기가 김선희의 얼굴 위에서 흩어지지 않, 깜박 잊고 있었던 카메라 생각이 났다. 그녀는 화장하기 전에 고인들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성형수술을 받기 전, 사진을 찍어 전후를 비교하듯 그녀 또한 자신의 방식대로 화장하기 전과 후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비교했다. 일종의 성취감을 만끽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할까. 무엇보다도 만족감이 컸고 애정도 갔다. 열을 전에 화장했던 고인은 일주일 동안 목숨에 잠겨 있던 의사체였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버렸고 얼굴색은 가지 빛이었다. 보랏빛 입술은 동굴 같은 목구멍이 다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었고 잇몸에 치아 몇 개가 간신히 붙어있었다. 그곳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 여자는 접착제로 소금에 절인 입술을 붙였고 보브, 핑키 바이올렛 립스틱을 발라 주었다. 미세한

다고 했을 때 다들 내기를 했어요. 그 전날 불에 탄 고인이 들어왔는데 그 얼굴을 보고 선생님님이 도망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만 선생님님이 남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줄 아세요?” 그녀는 C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호기심이 이는 그녀와 달리 그의 눈빛은 텅 텅했다. “바로 그거예요. 눈빛. 선생님님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실장님을 쳐다보면서 말했잖아요. 사체에 화장하고 싶다고, 실장님 뒤에 있던 저는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아, 라는 짧은 응답을 했다. 그리고 보니 그녀가 고인의 얼굴에 화장하기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나 있었다.

그때 실장은 전날 자동차 화재로 숨진 사체를 꺼내놓고는 입관실을 나가버렸다. 불에 탄 사체가 제일 끔찍하다 했던가. 혼자 남아 있던 그녀는 무서움보다는 시련에 통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했다. 고인의 얼굴은 왠 한지 얼얼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피부가 들려있었다. 그녀는 빈센트로 빗겨진 피부를 제자리에 붙여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했다. 다시 온 실장이 그녀를 보면서 허허, 허를 쳤다. 두 시간이나 지나있었다.

“선생님의 눈빛, 본 적 있었어요?” “...” C의 뒷박의 질문에 그녀의 가슴이 찡찡, 내려앉았다. 그녀가 생각하는 C는 장례식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생각하는 그저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의 입에서 자신의 눈빛,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해 자신이 들고 있는 카메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얼굴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보였다. 화장하지 않은 피부는 빨라진 색으로 얼룩져 있었고 시꺼먼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가파른 턱 선과 튀어나온 관대뼈는 어딘지 모르게 고집스러워 보였다. 조명으로 인해 눈언저리의 그늘과 볼거진 광대뼈, 높은 콧대가 강조됐다. 입술 피리가 살짝 올라간 사잔도 있었다. 입술 피리를 올라가 눈초리 또한 덩달아 아치형을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보조개가 양쪽 뺨에 패었다. 그녀는 눈을 흘뜨고 입을 벌렸다. 허를 밖으로 내밀어 보았다. 동공은 위로 치켜 올라가고 흰자위만 가득 찼다. 모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인의 표정을 흉내 낸, 기괴한 표정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장난 기가 묻어있었다. 실제 죽음과 죽음을 흉내 낸 표정. 그 간극은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렌즈를 노려보는 자신의 사진을 보았다. 여는 사진과 닮았는 각도였지만 렌즈를 노려보는 시꺼먼 눈 속에서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눈을 감는 것과 뜨는 것. 눈꺼풀의 단순한 운동이지만 눈동자 속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욕망들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 힘을 주고는 김선희의 눈꺼풀을 힘 있게 아래로 내리눌렀다. 긴 속눈썹이 손바닥에 닿자 간지러웠다. 같은 작업을 몇 번 더 했다. 다행히 눈이 감겼다. 흔히 사람들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비유하지만 그녀는 눈이라는 것은 욕망을 발산하는 창이라고 조금 달리 정의했다. 눈을 뜨고 생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뜻

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욕망도 탐지 않은 맑은 눈을 가져야 했다. 과연 맑은 눈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는 회의감이 들었다. 아예 눈을 볼 수 없게끔 감겨야 했다. 그래야 저 세상에 가서도 편히 쉬지 않겠는가. 그녀는 김선희의 눈을 감겨지자 이번에는 길게 빠진 허를 억지로 입 속으로 집어넣었다. 입속으로 허를 집어넣고 턱을 위로 올려 입을 다물게 했다. 높은 한지 베개를 고인의 뒤통수에 댔다. 긴 속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통통한 뺨과 두툼한 입술. 이제야 편안한 김선희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화장품 목록들을 떠올렸다. 화려한 볼과 같은 색조 화장은 어떻게. 화장품 가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누군가가 자꾸 자신의 등을 잡아당기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돌아봤다. 허, 소리를 내며 그녀는 멈춰버렸다. 애써 감겼던 눈이 다시 떠 있는 게 아닌가. 흰 동공을 드러낸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저 눈. C가 욕을 해댔다.

“제기랄, 뭐야, 또?” C가 놀라는 것만큼 그녀 또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김선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다시 일그러지는가. K도 그녀에게 온 몸으로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라달란가.

영화가 다 끝나고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 그녀는 남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극장 안에는 남자와 그녀, 맨 뒷좌석에 연인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똑같은 영화가 시작되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똑같은 장면과 소리를 들었을 때 또 다시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옆 좌석으로 갔다. 그 다음은 자연스러웠다. 남자의 이름이 K라는 것과 집을 나와서 생활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밥과 술을 샀다. 술이 취하자 그녀의 짐에서 같이 잤다. K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말해도 중얼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위해서 요리를 했고 빨래를 했고 그의 빛을 झा이주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었다.

실 “연당한 여자라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애인하고 드라이브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운전한 남자는 멀쩡하고 조수석에 탄 여자는 몸이 마비되고, 그 뒤는 뻔하지 않나요? 남자가 여자를 차버린 거죠, 뭐.” “누, 누가요?” “죽은 여자의 남자친구요.” “어, 어떻게 알아요?” “죽은 여자의 알마가 말했어요. 신고를 받고 아파트에 갔을 때 그곳에 이미 경찰과 동네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아줌마는 죽은 딸을 보면서도 통곡하듯 말했구요. 그런 것은 금세 퍼지잖아요.” 그녀의 등골로 서늘한 기운이 지나갔다. 하지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은 그녀는 사람 속에서 짐작제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안되겠어요. 눈꺼풀을 붙여야할 거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 보지 않는다 해도 눈을 치른 얼굴로 입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들고 있던 접착제를 C가 집더니 김선희의 눈꺼풀을 뒤집어 그곳에 발랐다. C는 그녀가 자신의 말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본 것들을 세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베란다가 난장판이었어요. 전부 빈 술병이었는데요. 죽기 전까지 술에 취해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나 봐요. 주민들의 민원신고 때문에 이 아가씨가 살았을 적에도 아줌마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보험도 들지 않은 처였고. 아마 병원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파트가 아주 작았거든요. 어쩔, 죽은 게 잘된 일일 수도...”

“눈을 치른 얼굴로 입관할 수는...”

그녀는 최고의 미소를 선사했다

고인에게 해서는 안될 그녀만의 화장술

말해도 그리고 그녀보다 다섯 살이나 어리다고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냥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그에게 선물했고 편의점이나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라고 충고했다. 그녀의 충고대로 K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줄어들자 서서히 오해가 생겼다. K가 그녀가 일하는 곳에 오지 못하듯 그녀 또한 그가 일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그녀는 K에게 고인의 얼굴에 화장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불구로 그가 혹시 주위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싶어 그가 일하는 곳에도 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구속해갔다. 그녀가 선물한, 그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뒤적였다. 그가 비밀 번호를 걸어도 아무소용이 없었다. 그녀 명의로 휴대폰이었다. 점점 죄책감이 없어졌다. 그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죄책감을 누를 정도로 그녀 자신이 K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다 치니깐 남자한테 너무 의지했다 봐요. 저 같은 쿨하게 남자를 보내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처음에는 남자가 간병도 하고 자주 찾아다녔고요.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쪽이 다쳐버리면 과다한 짐착을 해버린 거죠. 저라도 도 망쳤을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C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화제를 돌리고 싶었다. “어떻게 마비된 몸으로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맨 수 있었을까요? 죽는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접착제를 붙인 눈꺼풀을 지그시 누르고 있던 C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모르죠. 참부터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도.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었으니까, 신경이 정상으로 되돌아와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거 같고, 순전히 제 생각이예요. 크게 신

경 쓰지 마세요.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형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얼른 화장을 하고 입관을 하고 보내야 해요.”

C는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불을 붙였다. 그녀는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주시했다. 일 년 동안 봐온 C가 오늘의 그인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그녀와 그는 형사가 아니었다. 화장을 하고 영수를 할 뿐이었다. 의문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복잡한 미로 속에 빠지는 지름길인지도, 오해가 오해를 낳고 곧, 수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애초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오해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K의 전화목록 속에서 여자 이름만 나오면 어떤 관계냐고 물었고 조금만 퇴근 시간이 늦어도 무슨 일을 하고 왔냐고 욕박질됐다. 밤마다 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매시간 매초 그다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그가 집을 나가기 전 거의 애원하듯 외쳤던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그 말을 의심하고 생각하려고 했다. 지금도 그녀는 그녀를, “누나가 다리가 불편한 거 참피하지 않단 말이야. 제발 나를 믿어줘. 지금, 아무리 김태희를 한 트럭 갖다 준다 해도 싫단 말이야. 난, 돈 벌어서 빛도 झा이아하고 그래. 누군가를 만날 여유도 없단 말이야. 나는 누나 밖에 없단 말이야. 제발 나 좀 믿어줘.”

C가 실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올라가자 그녀는 김선희의 양쪽 어금니에 핀을 박아 입술 끝을 살짝 올렸다. 입술까지 뒤집어 안쪽에 접착제를 붙여버렸다. 모나리자의 미소, 미소를 떠올릴 수 없는 고인은 두려웠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녀는 김선희에게 최고의 미소를 선사하고 말했다. 간혹 화장을 하다보면 상주들의 얼굴에서 어떤 공명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고인의 행복함 표정이 만들어진 줄 알면서도 상주들은 그 표정을 진심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을 믿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듯이.

그녀는 김선희를 낯장고 안으로 밀어 넣었다. 입관할 때까지 몇 분의 여유가 있었다. 잠시라도 쉬고 싶었다. 화장하기 전에 피곤이 먼저 찾아왔다. 승강기 옆, 관을 보관해 놓은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다리가 쉽게 지치는 그녀가 가끔 쉬는 곳이었다. 창고 문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핑카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게 같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 위에 설치된 반사경 속에 스모키 화장을 한 얼굴이 왜곡되어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블랙클러 펜을 아이러니로 아이러인을 다소 길고 두툼하게 그린 뒤 언더라인은 꼬리 쪽만 그렸다. 진한 블루 색도를 아이러인과 쌍꺼풀 라인을 중심으로 퍼 발랐다. 피부 톤을 투명하고 하얗게 정돈한 뒤 입술에는 립 글로즈만 발라 반짝이게 했다. 결국 고인에게 해줄 수 없는, 그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화장술. 그녀는 왼쪽 입술 피리를 올렸다.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이 비쳤다. 이번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왼쪽 다리를 건방지게 벌렸다. 모멸처럼 다리가 길게 휘어졌다. 살짝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반듯한 것들을 왜곡시켜버리는 반사경 속의 피사체들이 끝이어서 입관실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고 그 사람들 또한 반사경 속에 휘어진 채로 그녀의 눈에 감히기 시작했다.

쫄쫄, 무슨 원한이 이리도 많아서...

C가 담배를 그에게 건넸다

“사체에 화장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상의 옷들을 보면서 현기증을 느꼈다. 화려한 색상의 옷들이 그녀에게 생소하게 다가왔다. 저녁 어스름에 내온사인 같이 거리를 물들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한기를 느꼈다. 허름한 동시상영 극장으로 들어갔다. 극장 안에는 사람 서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한참 상영 중인 영화는 일본 야쿠자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였다. 무조건 사람을 배고 죽이는 내용이였다. 바다에도 천장과 벽에도 피가 흥건히 묻어있기 일쑤였다. 처음에 목에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핏줄기를 봤을 때 그녀의 망막에 도래를 끼여어 놓은 것처럼 절그러웠다. 얼마 뒤, 시야에 범람한 핏빛은 그녀를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렸다. 나뭇처럼 수없이 죽어나가는 목숨들.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지도 몰랐다. 두 번째 영화는 아가 악령이 나왔다. 첫 번째처럼 사람들을 무자비로 죽여지는 않았지만 악령이 나오기 전, 어떤 전조처럼 으스스한 음악이 깔렸다. 영화관 안은 좁은 실내에 비해 큰 스타레오를 설치해놓고 있었다.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은 듯 소리는 컷지만 불규칙한 소리가 난데없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 소리가 튀어나오면 좌좌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허, 하며 숨을 몰아쉬듯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핏빛에 금방 익숙해져버리듯 소리 또한 무감각해졌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남자의 뉘뉘 수만 쳐다봤다. 그 남자는 큰 소리로 들려도 고향을 내질렀다. 그 모습이 신기했다. 남자가 공포 영화를 볼 때 무서워한다는 것을 그때야 처음 알았다든 듯이.

필 때문에 입술은 갈치비늘처럼 반짝였다. 부풀어 오른 배를 가르면 은빛으로 반짝이는 갈치가 퍼덕이면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자신이 화장한 고인들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 또한 그녀가 고인들과 가까워지는 한 방법이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그녀의 스타일을 묵인했다. 그녀는 상주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간신히 승낙을 얻어냈다. 그녀는 서터를 여러 방향에서 놀려댔다. 김선희의 머리 위에 서서 찍었을 때, 위로 치켜 뜬 눈동자가 그녀를 자꾸 훑어보는 거 같았다. 잠시 잊고 있었던 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한쪽 입술피리를 살짝 올렸던 김. 검은 알고 있었을까. 같이 죽자 유산문제 시끄럽게 신문지면을 장식했던 가족들... 그 비웃음은 가족들을 향한 우풍이 었을까. 고인의 얼굴이 다 끔찍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전에 화장했던 고인의 얼굴은 평온했다. 죽음도 젊고 고왔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줬던 50대 손부의 얼굴. 상주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꾸 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때처럼 젊고 고왔다면, 시, 눈물까지 흘렸다. “그게 알아요? 선생님님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는 것예요?” 그녀는 깜짝 놀라 C의 얼굴을 봤다. C의 입가에 미소가 어려 있는 게 보였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도 미소를 지을 수 있구나. 새삼 이런 생각이 그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녀도 입가를 살짝 올리려다가 그만 두었다. 그녀에게 여전히 미소는 어색했다. C는 담배를 비벼 끄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이 처음 이곳에 찾아와서 화장한

쫄 “쫄, 무슨 원한이 이리도 많아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할까...” C가 허를 치며 말을 했다. 그녀는 잡에서 꺼어나듯 김선희의 얼굴을 말그러미 내려다봤다. 다시 일그러진 김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여자 말에 귀 기울여준 소나무야 고마워...



▲1974년 순천 출생. ▲광주대 문예창작과 졸업.

당선자 차노희씨 결혼식 피로연보다 장례식장 입관실이 더 편한 여자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놓자 수많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으로 끼어들어 여자는 잠시 숨을 멈춰야 했다. 도서관, 먼지 낀 장소에서 나는 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 차가운 시멘트벽에 등을 대고 책장을 넘겼던 사진첩과 화첩들, 르 클레지오의 책들, 창밖으로 내려진 함박눈, 지하에 있는 커피 자판기, 히터 돌아가는 소리, 낡은 아반떼가 롤링이며 멈추는 소리, 아파트 뒤 주차장, 거실에 처진 검은 커튼, 남해 활어횃집과 네티즌. VIPS에서 마셨던 코로나 한 병, 카페 테이블 위의 낙서장과 물레방아,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송어회, 질박 같은 안개, 일몰, 막막한, 목포 북항, 모래밭의 낙서들, 담배 연기 자욱한 PC방, 긴 천으로 기운 색 바랜 추리닝, 거드랑이 냄새, 쿵, 쿵, 심장 뛰던 소리, 3068 여자의 휴대폰 비밀 번호, 3월1일 여자의 생일과 그 다음 날, 폭 눈러슨 검은 모자, 걸기, 말그러미 여자를 쳐다보던 두꺼비 한 마리, 공동묘지, 말없이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던 산책길 소나무 한그루 그리고 RAISON BLACK. 십년 동안 저를 끌어주셨던 광주대학교 교수님들,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가족~,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읽고 열빈 토론을 함께 해오고 있는 ‘생각과 대화’ 회원님들, 지도해주시 교수님, 사랑합니다.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삶과 죽음·고통의 함수관계 흥미롭게 풀어가

본심에 올라온 응모작은 10편이었다. 대부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반가웠다. 먼저 상투적인 이야기와 뻔한 메시지, 그리고 소박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을 제외시켰다. 문학 수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미숙하거나 낡은 문장, 엉성 한 구성을 보이는 작품들도 제외되었다. 작위적이고 감상적인 서술 역시 탈락의 요인이 되었다. 권영란의 ‘극락조’는 정갈한 솜씨가 돋보인다. 이야기, 묘사, 구성 등에서 문학적인 훈련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을 적당히 갖추었다 할까. 그러나 그 중 어느 한 가지도 강렬하거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낡은 이야기에서 머물러버린 느낌이였다.

당선작은 차노희의 ‘얼굴을 보다’로 결정되었다. 사체에 화장을 하는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 고통의 함수관계를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처, 즉 현재적인 문제의식에 가장 접근

▲목원대 국어교육학과 졸업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단편 ‘마디’로 등단 ▲2007년 제2회 허균 문학 작가상·제12회 한무숙 문학상 ▲소설 ‘시계가 걸려있던 자리’ ‘슬픈 바다’ ‘비밀의 문’ 등 저서 다수

한 작품이라 하였다. 문장도 정돈돼 있고 인물들을 교차시키면서 풀어나가는 이야기의 연결고리도 자연스럽다. 다소 감상적인 독백이 눈에 띄긴 하지만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데에 두 심사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예예 준평 ‘이중주’로 등단 ▲2007년 제38회 동인문학상 등 수상 ▲소설 ‘새의 선물’ 등 저서 다수